"이 가을, 공연 한편 어때요?"

광주시립예술단체들 가을 공연 '풍성'

'연(燕)·풍(風)' 신명난 국악 잔치

국악관현악단, 김영동씨 초청 무대

'가을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광주시립예술단체들이 풍성한 가을 공연을 준비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연은 광주문예회관이 기획공연으로 준비한 '연(燕)·풍(風)'이다.

오는 28일 오후 6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시립국극단과 채향순 무용단이 함께 꾸미는 대형 무대로 전통 국악과 현대 국악이 어우러져 신명을 선사한다.

국극단이 준비한 '놀보 박타령'은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하나인 '흥보가' 가운데 익살과 해학이 가장 뛰어난 부분을 전통 창극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기념 공연에 참여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채향순 무용단은 '풍고(風鼓)'를 무대에 올린다.

'풍고'는 천둥과 번개의 가락을 다양한 역동적인 북장단과 화려한 춤사위로 표현한 작품. 조선왕조 태평성대를 형상화한 '제천무', 선비의 기풍과 여인의 고고함을 상징하는 군무인 '사풍여화', 승무의 춤사위와 바라를 이용해 우주의 이치를 표현한 '화현무' 등으로 구성돼 있다.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갖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국악 가요 '어디로 갈까나'로 유명한 김영동씨를 지휘자로 초청,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현재 경기도립국악관현악단을 이끌며 대금 연주자로도 명성을 날리고 있는 김씨는 '한네의 승천' '삼포가는 길' 등을 통해 국악 대중화에 앞장선 음악인으로 대종상 음악상, 아태영화제 최우수음악상, 대한민국작곡상 등을 수상했다.

국악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지휘자 김영동씨.

'소리! 하나였는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백대웅 곡 '남도 아리랑', 김희조 곡 '합주곡 1번'이 연주되며 세계적인 음악가 양방언의 '프론티어'(Frontier!)가 국악관현악으로 재해석된다.

또 판소리 '심청가' 중 '범피중류', '한네의 승천' 가운데 '서곡'과 '한네의 이별', '대합창'이 공연되며 김영동 작곡의 '하나'도 연주된다.

국립국악원 수석단원 이주은, 가수 김정선이 찬조출연하며 광주시립합창단(지휘자 구천)이 합창을 맡는다. 기타(이대호), 전자 피아노(정도형·이동훈) 등 현대 악기가 함께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전할 예정이다.

시립교향악단은 가을날 아름다운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선사한다. 2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임흥규 부지휘자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최영섭 곡 '그리운 금강산', 조두남 곡 '뱃노래', 채동선 곡 '그리워' 등 한국 가곡과 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신데렐라' 중 '슬픔과 눈물 속에서 자라나',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를 선보인다.

또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서곡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등 다양한 연주 음악도 관객들을 찾아간다.

출연진은 소프라노 신지화, 메조소프라노 서은진, 테너 박현재, 바리톤 김기보씨 등이다. 문의 062-510-92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이 기획공연으로 준비한 '연(燕)·풍(風)'

원색의 찬란한 꽃잎 캔버스 속으로

'꽃의 화가' 허정씨 서울서 개인전

'꽃의 화가' 허정씨가 지난해 첫 번째 개인전에 이어 올 가을에는 서울과 중국을 오가며 더욱 완숙해진 미학의 꽃망울을 터뜨린다.

먼저 허씨는 오는 10월1일 ~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서울 인사동 '갤러리 LIGHT'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허씨는 'Twist Flower'를 주제로 꽃의 다양한 형상과 움직임을 포착한 신작을 선보인다. 원색의 따뜻한 이미지로 만개한 꽃들은 생명력을 물씬 풍기며 마치 춤을 추듯 자유분방하다.

허씨가 표현한 꽃잎은 추상과 구상을 넘나드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화면을 여러 개로 나눈 뒤 꽃잎의 일부분만을 강조해 그리거나 흐릿하게 처리해 흔들리는 꽃의 움직임까지 표현했다. 사물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물 흐르듯 붓질을 해, 꽃 속에서 사람의 얼굴과 나비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추상화의 묘미도 살렸다.

서양화가 우제길(우제길미술관 관장)씨는 "허씨의 작품은 원색의 찬란한 색채 분위기를 연출해 관람객들을 사로잡고 있다"면서 "여린 꽃잎 하나가 꽃밭으로 변해가는 울림이 느껴지는 작품이다"고 평했다.

'Twist Flower'

허씨는 또 10월8일~14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관 기념 초대전을 갖고, 10월25일~29일까지는 장소를 중국으로 옮겨 '2008 베이징 798 아트페스티벌'에 참여한다.

개천미술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허씨는 남부현대미술제, 정예작가 초대전, 2007국제현대미술제 초대전 등 단체전에 참가했다. 문의 02-725-004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07 연례보고 8월1일현재 전시 08

광주비엔날레 영구 보존 기념작 설문

조동환·조해준 '미군과 아버지' 등 인기

2008 광주비엔날레 출품작 중 영구 보존할 기념작품을 묻는 관람객 설문조사에서 조동환·조해준 부자의 '미군과 아버지'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23일 중간발표를 통해 "기념작 선정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100여명의 관람객을 설문조사한 결과, 조씨 부자의 작품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과 아버지'(비엔날레 제2전시관)는 미군 부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던 아버지의 경험을 30여장의 드로잉으로 표현한 일종의 다큐멘터리 형식의 작품이다. 책처럼 한 장씩 넘겨볼 수 있고, 한국 근대사의 아픔을 비교적 잘 묘사했다.

조동환·조해준 부자의 '미군과 아버지'

또 한스 하케(독일)의 '넓고 하얀 흐름'(〃)도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대형 실크 천(324㎡)에 바람을 불어 넣어 바닥에서 펄럭이게 한 작품이다.

이밖에 휴마 브하바(파키스탄)의 '무수한 세월동안 흙먼지 속에서 희망은 다시 샘솟는데'(제3전시관), 바이런 킴(미국)의 '고려청자 유약'(의재미술관)도 인기 작품으로 뽑혔다.

한편 재단은 오는 30일까지 관람객 230명, 언론인 40명,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후보작품 10점을 뽑을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제4회 무등가요제 ▶ 10월9일 오후 7시 옛 도청 앞 무대

광주·전남 지역의 신인가수 발굴을 위한 '제4회 무등가요제'가 오는 10월9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옛도청 앞 충장축제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사)한국문화예술연합회(회장 김효중)가 주최하는 이번 가요제에서는 초대가수 송대관, 최유나, 김용임, 김양, 변지훈 등 인기가수의 축하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만 18세 이상의 남·녀로 가수협회증이 없고 레코드 취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상 1명, 금상 1명 등 총 6명의 수상자에게 총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3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와 함께 신인 가수 육성 프로그램에 참가기회도 주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0월 3일까지 신청서와 소명함판 사진 2장을 (사)한국문화예술연합회 사무실(서방사거리 구 LG패션 5층)로 제출하거나 팩스(062-230-1195)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269-0500.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